

누구나 싫어하는 님비 시설의 화려한 변신

꺼리는 공간에서 끌리는 공간으로

'내 뒷마당에는 안 된다'며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혐오·기피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는 집단 이기주의를 일컬어 '님비'(NIMBY·Not In My BackYard)라고 한다. 쓰레기소각장, 장례식장, 하수처리장, 핵폐기장이 님비의 표적이 되는 대표적 사례다. 도시화의 급진전으로 자연스럽게 확장된 도심 속에 들어앉은 모양새가 된 발전소나 공장 등도 님비 대상에 포함된다. 생활 속의 공해를 유발하거나 미관을 해치기 때문이다. 한때 흉물 취급을 당하던 우리 주변의 혐오·기피 시설들이 환골탈태에 성공하며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변신하고 있다.

글 임동근 기자 · 사진 임귀주 기자



1 마포 문화비축기지 석유탱크에 기름 빼고 문화 채우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경기장과 하늘공원 사이 매봉산 아래에는 40여 년간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비밀스러운 공간이 있다. 일명 '석유비축기지'. 2000년 폐쇄되면서 쓸모를 잃고 방치됐던 이곳이 최근 친환경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1970년대 두 차례 석유파동으로 국내 경제가 큰 타격을 입자 정부는 상암동 매봉산 자락에 석유를 비축하기로 한다. 2년간의 공사 끝에 축구장 22개 크기인 14만㎡ 부지에 지름 15~38m, 높이 15m의 탱크 5개와 기타 부속시설이 들어섰다. 탱크 하나엔 가솔린을 담고, 나머지 두 개씩에는 경유와 등유를 보관했다.

보관 가능한 석유는 총 6천907만ℓ. 당시 서울 시민이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었다. 일하는 직원 외에는 출입이 철저히 통제된 1급 보안시설. 아무나 출입할 수 없었고 존재를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 직원들은 늘 긴장 상태였고 간접 침투를 대비한 훈련과 화재 대비 소방 훈련도 수시로 진행됐다.

석유비축기지는 한일월드컵을 앞둔 2000년 11월 안전 문제로 폐쇄됐다. 바로 길 건너에 상암월드컵경기장이 들어서 는 점을 고려했다. 비축된 석유는 경기도의 저장소로 옮겨

졌고, 부지 일부는 월드컵 기간과 이후 임시주차장으로 사용됐다. 쓸모를 잃어버린 거대한 강통들은 땅속에 묻혀 빨갈게 녹슬어 갔다.

낡고 녹슨 유산을 깨운 것은 다름 아닌 서울시민들이었다. 2013년 일부 시민들이 석유비축탱크를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를 냈고 토론회와 국제 현상 설계 공모가 진행됐다. 국제 현상공모에서 수상한 작품명은 '땅으로부터 읽어 낸 시간'이었다. 설계에는 당연히 시민의 의견이 반영됐다. 마침내 2015년 말 '마포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화 사업'이 본격 시작됐다. 목표는 친환경 문화복합공간으로의 재생이었다.

오랜 잠에서 깨어난 탱크들

사업 시작 약 2년 만인 지난 9월 석유비축기지의 새로운 모습이 공개됐다. 전체적인 모습은 그대로지만, 석유를 비축하던 곳에서 문화 전시장과 공연장으로 쓰임새가 바뀌었다.

- 1 매봉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풍경
- 2, 3 콘크리트 옹벽이 고스란히 남은 T2
- 4 T2의 야외무대
- 5, 6 석유비축기지 시절 탱크가 원형대로 보존된 T3





T4

문화가 가득한 곳이란 뜻에서 이름도 '문화비축기지'로 바뀌었다. 석유비축기지는 화력발전소에서 미술관으로 변신한 영국 런던의 테이트 모던 미술관이나, 가스공장에서 주거와 문화 복합시설로 거듭난 오스트리아 빈의 가스메터 시티처럼 방치된 산업유산이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한 경우다. 문화비축기지는 가동 방법도 친환경적이다. 기지 내 모든 건물의 냉·난방에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인 지열을 이용한다. 30t 용량의 중수처리시설로 생활하수를 정화해 화장실 대소변기에 사용하고, 저류조에는 빗물 300t을 저장해 조경용수로 쓴다. 문화비축기지는 원래 있던 탱크 5개 외에 탱크 1개가 새로 들어섰다. 기존 임시주차장에는 '문화마당'이란 문패가 걸렸다. 하늘에서 보면 문화마당을 중심으로 탱크들이 매봉산 아래에 부채꼴로 들어선 구조다. 기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문화마당 뒤편 언덕에 있는 'T6'(탱크 6). 초록빛의 얼룩덜룩한, 예전 육군 전투복 무늬의 직사각형 철판이 동그런 외벽을 두른 건물이다. 이곳은 탱크 1·2를 해체하며 나온 철판을 외관에 재활용한 기지의 유일한 신축 탱크로 '커뮤니티 센터'로 이용된다. T6는 국제회의나 강연, 문화 공연이 진행되는 다양한 공간을 갖추고 있고 카페테리아, 강의실, 회의실도 있다. 특히 1층에서 2층으로 연결되는 경사로는 공간이 아름다워 전시장으로 쓰기에 안성맞춤이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공간들

T6 뒤편으로 가장 왼쪽의 T1부터 맨 오른쪽의 T5까지 탱크가 하나씩 자리하고 있다. T1은 기술관을 보관한 지름 25m, 높이 15m의 가장 작은 탱크였다. 입구에 들어서 화색빛 긴 터널을 지나면 투명한 유리 벽으로 둘러싸인 동그랗고 환한 공간이 나타난다. 탱크 해체 후 남겨진 콘크리트 웅벽을 이용해 유리 파빌리온을 만든 것이다. 유리 바깥으로는 암벽과 그 틈에서 자라난 초록색 풀이 고스란히 보인다. 전시, 공연 등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밤에는 별을 관찰할 수도 있다.



4



5



T5

4, 5, 6 문화비축기지의 역사를 볼 수 있는 T5
7, 8 전시장으로 사용되는 T6의 경사로와 회의장

탱크를 둘러싼 콘크리트 웅벽이 고스란히 남은 T2에는 4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야외무대와 실내공연장이 들어섰다. 경사로를 따라 오르면 매봉산이 뒤편을 동그랗게 두른 원형극장이 나타난다. 콘크리트 웅벽의 안쪽은 그대로 무대로 사용되고 관객석도 마련돼 있다. 지하에는 현대적인 실내공연장이 자리하고 있다. T3는 석유비축기지 시절 유류 저장 탱크가 유일하게 원형대로 보존된 케이스다. 콘크리트 웅벽 한쪽의 출입구로 들어서면 붉게 녹이 슨 탱크가 모습을 드러낸다. 직경 30.98m, 높이 15m의 탱크로 경유 약 1만5천ℓ를 보관하던 곳이다. 땅을 깊이 판 후 탱크를 앉혔기 때문에 바닥까지의 깊이가 상당하다. 웅벽 안쪽에는 초록색 이끼가 가득해 흘러간 시간을 가늠케 한다. T4는 탱크 내부의 형태를 그대로 살린 공간이다. 내부에는 원래 있던 철재 기둥 21개가 있다. 유량을 재던 천장 구멍을 통해서는 빛이 스며들어 묘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11월 11일까지 이곳에서는 탱크의 특성을 살린 전시회 '탱크 가득 리볼브'가 진행된다. 소리에 맞춰 조명 색깔이 변하고 스크린에는 관객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탱크 바깥으로 조성된 산책로를 따라가면 웅벽의 콘크리트를 뚫고 자라는 오동나무, 석유의 양을 재던 유류 계측기 등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 T5는 '이야기관'으로 불린다. 한 바퀴 돌면 1970년대 석유비축기지 시절부터 지금의 문화비축기지까지 그동안의 흥미로운 이야기가 생생하게 펼쳐진다. 한쪽에서는 매봉산 절단면이 그대로 드러난 사각 프레임을 찾아볼 수 있다. 임시주차장으로 쓰였던 공간은 '문화마당'이란 이름의 광장으로 재탄생했다. 이곳은 시민이 참여하는 복합 콘텐츠 시장, 먹거리와 볼거리가 가득한 야시장, 축제장, 공연장 등으로 활용된다. 기지를 감싸고 있는 매봉산에 오르면 특별한 풍광도 감상할 수 있다. 매봉산 전망대에서는 하늘공원과 월드컵경기장, 유유히 흐르는 한강, 그리고 멀리 남산타워 등이 파노라마로 펼쳐진다. 전체적으로 사람의 손처럼 보이는 문화비축기지도 아름다운 자태를 뽐낸다. 전망대는 T1이나 T5 바깥쪽에 있는 산책로를 따라가면 닿는다. 이광준 문화비축기지 기지장은 "T1의 유리 파빌리온, 자연암반이 좋은 음향을 만들어내는 T2의 야외무대, 공간 자체에 울림이 있는 T4 등 기존 구조물이나 건축물에 없는 공간이 방문객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한다"며 "열린 구조라는 공간의 특성을 살려 앞으로 시민들이 자유롭게 용도를 설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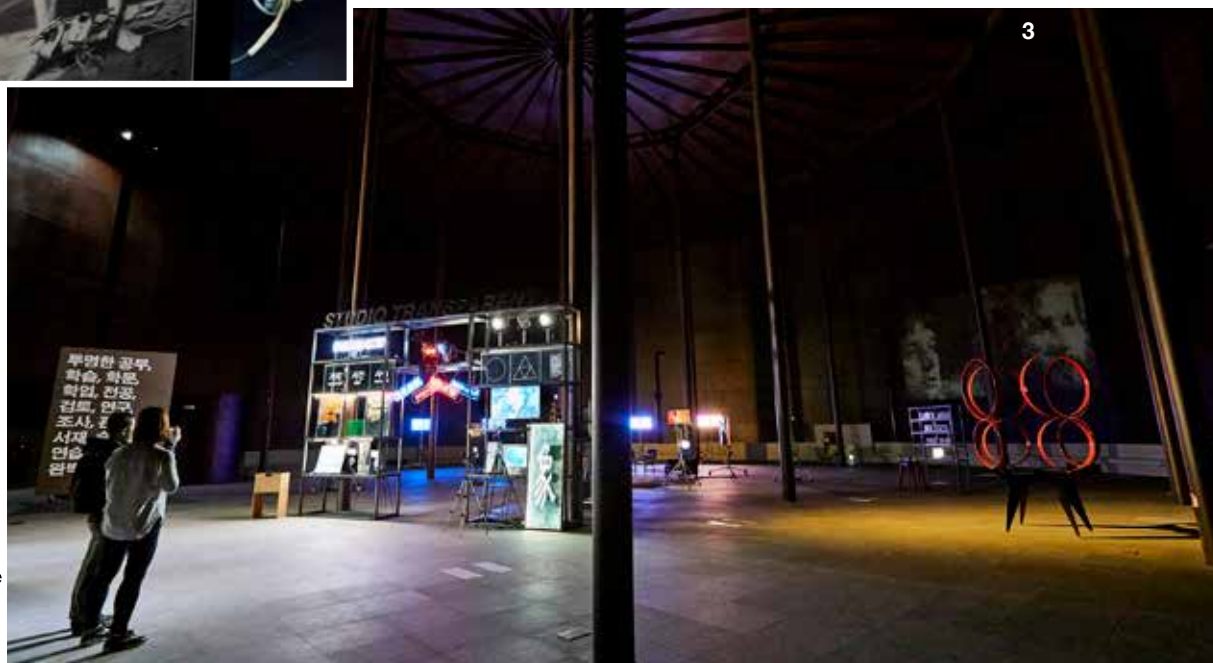
T6



7

8

1 T4 바깥의 산책로, 웅벽을 뚫고 오동나무가 자라고 있다.
2 11월 11일까지 열리는 '탱크 가득 리볼브' 전시회
3 탱크의 철재 기둥이 그대로 남은 T4 내부



3



1

중랑물재생센터 악취 풍기던 공간의 멋진 변신은 ‘무죄’

국내 1호 하수처리시설인 서울 중랑물재생센터 부지에 업사이클링(Up-cycling) 허브인 서울새활용플라자와 국내 최초 하수도 과학시설인 서울하수도과학관이 들어섰다. 악취의 진원지라는 오명을 썼던 이곳에는 물을 주제로 꾸며진 물순환 테마파크도 조성돼 시민에게 깨끗하고 여유로운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물재생센터는 '물이 몸을 씻는 곳'이다. 즉 '물의 목욕탕'. 흔히 '하수처리장'으로 불린다. 더러워진 물인 하수와 분뇨(똥오줌)는 이곳에서 맑고 투명하게 변신한다. 정맥을 따라간 피가 심장에서 깨끗해지듯 하수도를 따라간 물은 이곳에서 정화돼 도로 청소용, 냉각수 등으로 사용되거나 천(川)이나 강으로 유입된다. 물재생센터는 이렇듯 인간과 환경을 위한 필수 시설임에도 남비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기피시설로 꼽힌다. 더럽다는 선입견과 물을 정화하며 발생하는 좋지 않은 냄새 때문이다. 서울에는 한강을 경계로 북쪽에 중랑과 난지, 남쪽에 탄천과 서남 등 총 4개의 물재생센터가 있다. 이들 물재생센터는 매일 1천만 서울 시민과 주변 지역 주민이 배출하는 하수와 분뇨 등 총 569만t을 세탁하고 있다.



2



3

물이 몸을 씻는 곳, 물재생센터

서울 장한평에 있는 중랑물재생센터는 1976년 운영을 시작한 우리나라 최초 하수처리시설인 청계천 하수처리장의 후신(後身)이다. 지금은 서울 동북 지역과 의정부 일부 지역의 하수와 분뇨를 정화해 중랑천으로 배출한다. 그동안 시민들로부터 외면을 받던 이곳이 '환경'과 '재생'의 공간으로 화려하게 옷을 갈아입었다.

중랑물재생센터의 부지 면적은 80만㎡. 여의도의 약 28%에 해당하는 크기다. 부지에 들어서면 새로 들어선 서울새활용플라자와 하수도과학관, 회고 붉은 코스모스가 피어난 꽃밭, 연못이 있는 공원이 시야에 들어온다. 바람에 가끔 실려 오는 살짝 비릿한 냄새가 이곳이 하수처리장이라는 사실을 겨우 깨닫게 한다.

한쪽에서는 하수를 침전시키는 공간과 여과시설, 방류구 등을 볼 수 있다. 방문객의 견학 공간으로 이용되는 이곳에서는 우리가 사용한 물이나 배설한 분뇨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하수도과학관은 2009년부터 시작한 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라 마련됐다. 기존 하수처리시설 일부를

철거하거나 지하화하고 그 위에 하수도의 역사와 재생 과정을 보여주는 전시장을 세운 것이다. 총면적은 2천 365㎡(717평)로 하수도 전시장(1층)과 어린이 체험 참여 시설(2층)로 구성돼 있다. 물론 이곳 지하에서는 하루 25만t을 처리하는 하수처리시설이 가동되고 있다.

김도근 중랑물재생센터 주무관은 "하수처리시설을 지하화해 악취를 없애고 지상 부지를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꾸몄다"고 말했다. 또 "이곳에서 정화된 용수는 하수도 과학관 주변 공원과 연못 등에서 활용하고, 하수를 처리하며 발생하는 메탄가스는 에너지업체에 판매해 수익을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생 의미 전하는 전시공간·테마파크

하수도과학관 1층 전시장에 들어서면 우선 하수도의 역사가 눈앞에 펼쳐진다. 모헨조다로 유적의 배수와 하수 시설, 고대 로마와 폼페이의 하수 유적, 울산의 암거형 배수시설 유적 등 전 세계 역사 속 하수 시설 자료를 볼 수 있다. 또 익산 왕궁리 유적의 대형화장실과 경주 동궁·월지의 배수로 모형도 있다.

- 1 중랑물재생센터 전경
- 2 서울하수도과학관에서 바라본 물순환테마파크
- 3 정화된 물이 담긴 공간
- 4 하수도과학관 내부
- 5 태평로·남대문로 지하배수로 사진
- 6 '내 똥은 어디로 갈까'를 주제로 진행되는 어린이 프로그램



4



5



6



조선왕조실록 '태조실록'의 청계천 공사 기록도 있다. 커다란 하수구 모양의 공간에 들어서면 100년 전 태평로와 남대문로 지하배수로, 덕수궁 내 지하배수로, 명동성당 근대배수로를 사진으로 볼 수 있다. 중랑물재생센터에서의 하수처리 과정을 엿보고 하수도 모형도 살펴볼 수 있다. 영상실에서는 '중랑물재생센터'나 '서울하수도과학관'에 관한 흥미로운 영상을 볼 수 있다.

2층은 어린이를 위한 공간이다. 백제 시대 남성의 이동식 변기인 '호자', 조선 시대 왕의 변기인 '매화틀', 똥이나 오줌을 담아 나르던 똥지게 등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전시물을 만날 수 있다. 어린이들은 '내 똥은 어디로 갈까'를 주제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참가해 스티커 붙이기와 색칠하기를 통해 생활 속 하수에 대해 배울 수 있다.

과학관 3층을 통해 바깥으로 나오면 U 자형의 비스듬한 공간이 나타난다. 곳곳에 벤치가 놓여 있고 한쪽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설치됐다. 과학관 주변으로는 물순환테마파크가 조성됐다. 공원에는 연못과 물놀이터, 산책로, 실개천과 습지, 바람의 언덕 등이 있어 방문객이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에 좋다.

폐소재에 디자인을 입히다

하수도과학관 맞은편에는 재활용플라자가 들어서 있다. '재활용'(Up-cycling)은 업그레이드(Upgrade)와 재활용을 뜻하는 리사이클링(Recycling)의 합성어다. 버려지는 제품을 단순히 재활용하는 차원을 넘어 디자인을 가미하는 등 가치를 창출해 새로운 제품으로 탄생시키는 것이다.

폐방수천으로 세련된 디자인의 가방을 만드는 스위스의 '프라이탁'(Freitag)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표적인 재활용 업체다. 국내에도 코오롱의 재활용 패션 브랜드 'RE: CODE(레:코드)', 폐소재로 가방 등을 만드는 사회적기업 '모어덴' 등이 있다.

재활용플라자는 바로 재활용 재료 기증과 수거, 가공, 제품 생산, 판매가 원스톱으로 이뤄지고 관련 교육과 체험을 진행하는 복합 공간이다. 재활용프라자는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구성돼 있다. 건물 전체 조명을 LED로 설치하고, 에너지 사용량의 35%를 태양광·태양열·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친환경 건물이라는 점도 특징이다.

가장 먼저 둘러볼 곳은 지하 1층에 있는 소재 은행. 재활용 제품에 사용되는 재료를 구할 수 있는 공간이다. 현재 이곳은 폐가구, 헌옷, 자투리 가죽, 폐주방용품, 폐차 부속, 폐타이어 등 20여 가지 재활용 소재가 어떻게 상품화되는지 보여주는 전시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곳은



- 1 폐소방호스로 만든 조명 작품
- 2 유리병을 이용한 유리공예
- 3 자전거 부속으로 만든 조명
- 4 재활용 제품 전시
- 5 재활용 체험 키트
- 6 디자이너 피트 하인 이크의 조각 목제 가구
- 7 재활용 소재 라이브러리



앞으로 재활용 소재 정보를 모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재활용 소재 정보 허브로 활용될 예정이다.

1층에는 전시장이 있다. 이곳에서는 12월 10일까지 2017 서울재활용전 '지구를 위한 약속'이 열린다.

모어덴, 인라이튼, 터치포굿, 세컨드비 등 국내 재활용 기업과 조각 목제 가구를 제작하는 세계적인 디자이너 피트 하인 이크의 작품을 감상하며 재활용의 뜻을 음미할 수 있다.

2층에는 소재 라이브러리가 자리한다. 이곳에는 종이컵, 우유 팩, 두루마리 화장지 심 등 생활 속 소재를 비롯해 피혁, 원단, 목재, 금속 등 농업·광업·제조업 사업장의 소재, 토목·건설 현장의 소재 등이 종류별로 전시돼 있다. 한쪽에는 폐소방호스로 가방 등을 만드는 브랜드 '파이어 마커스'의 제품들이 전시돼 있다.

3~4층에는 재활용 업체 32개가 입주해 있다. 폐자전거, 유리병, 폐자동차, 페트병, 가죽, 청바지 등 각기 다른 소재에 디자인을 입혀 새롭고 독특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곳들이다. 방문객은 투명 유리창을 통해 작업 과정을 살펴볼 수 있고, 만들기 체험에 참여하거나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정지는 세컨드비 이사는 이곳에서 자전거의 바퀴, 체인, 튜브 등을 이용해 조명, 필통, 장신구 등을 만들고 있다.

정 이사는 "재활용 상품 제작자들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버려지는 다양한 소재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입점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 입주업체는 재활용 홍보를 위한 시민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3 아산환경과학공원 친환경 명소로 거듭난 쓰레기소각장

아산환경과학공원은 쓰레기소각장 부지에 조성된 친환경 공원이다. 공원에는 생태곤충원, 장영실과학관, 건강문화센터, 수영장, 소각장 굴뚝을 이용한 전망대와 레스토랑이 들어서 있다. 아산환경과학공원은 혐오시설도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변모할 수 있음을 증명한다.



1

충남 아산 배미동의 아산환경과학공원에 있는 생활자원처리장(쓰레기소각장)은 아산과 인근 홍성, 당진에서 배출하는 하루 최대 200t의 쓰레기를 소각 처리하는 시설이다. 주변으로는 물환경센터(하수처리장), 재활용 선별장이 있다. 시설들만 보면 그다지 가고 싶지 않은 곳이다.

하지만 이곳에 가보면 악취가 심하고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를 것이라던 선입견을 완벽하게 깨준다. 악취는 느낄 수 없고 높다란 굴뚝에선 흰색 연기만 솟아오른다. 가끔 바람이 불면 미세하게 비린 냄새가 나긴 하지만 그 냄새는 생활자원처리장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거대한 쓰레기소각장에서 악취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다.

노영동 아산시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장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친환경과 주민친화를 염두에 두고 소각장 건설을 계획했다"며 "최첨단 환경오염제거시설을 갖추고 있어 이곳에서 배출하는 연기는 자동차 매연이나 담배 연기보다 깨끗하다"고 자신했다.

생활자원처리장은 에너지 공급원이기도 하다. 소각로에서 쓰레기를 태울 때 발생하는 열을 공원 내 모든 시설의 냉난방 에너지원으로 활용한다. 또 인근 제지공장에 열을 공급해 판매수익을 올린다. 인근 마을 주민들은 폐열을 이용해 대규모로 세탁물을 처리하는



3



2

세탁기업도 운영해 수익을 내고 있다.

생활자원처리장 주변으로는 곤충생태원, 장영실과학관, 건강문화센터, 수영장, 풋살장 등이 들어서 있다. 주민에게는 친환경 휴식 공간이 되고, 방문객에게는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생태·과학 공원이 되고 있다.

노영동 팀장은 "2011년 설립 초기에는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는 주민들의 오해가 있었지만 지금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견학을 오고, 관광객이 찾아드는 지역 명소가 됐다"고 전했다.

소각장 굴뚝 꼭대기에 전망대

생활자원처리장의 외관은 반딧불이 모양이다. 친환경을 강조하기 위해 깨끗한 환경에서 서식하는 반딧불이의 모습을 건물 디자인에 반영했다고 한다. 방문객의 시선을 가장 사로잡는



4

- 1 아산환경과학공원 생활자원처리장의 그린타워
- 2, 3 주변 풍광이 내려다보이는 그린타워 전망대와 레스토랑
- 4 생활자원처리장의 쓰레기 소각 처리 장면



1 그린타워 1층의 생태곤충원 2 육지생물관의 재롱둥이 미어캣 3 생태곤충원의 누에 실 뽑기 체험 4, 5 생태곤충원에서 만날 수 있는 메뚜기와 장수풍뎅이



것은 반딧불이 꼬리에 해당하는 높이 150m의 굴뚝. '그린 타워'로 불리는 굴뚝은 단순히 연기를 뿜어내는 기능만 하지 않는다. 엘리베이터로 1분 이상 걸리는 굴뚝의 130m 지점에는 아름다운 풍광을 선사하는 전망대와 레스토랑, 카페가 들어서 있다. 전망대에서는 아산 북쪽을 지나 흐르는 아름다운 곡교천과 벼 베기가 끝난 들판, 고층 건물과 아파트가 들어선 아산 시내가 시원스럽게 내려다보인다. 전망대 곳곳에서는 직사각형 투명 바닥 유리를 통해 발아래로 까마득하게 펼쳐진 지상의 풍경을 내려다볼 수도 있다. 전망대 위층에는 레스토랑과 카페가 자리한다. 커피나 차,

돈가스, 주먹밥, 우동 등을 즐기면서 주변 풍경을 감상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이곳에서는 SBS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이 촬영되기도 했다. 그린타워 1층에 있는 유리온실은 생태곤충원이다. 곤충은 물론 물고기와 동물을 만날 수 있어 어린이 동반 방문객에게 가장 인기가 높은 공간이다. 수서생물관에서는 수조에 손을 넣으면 조그만 닥터피시들이 몰려들어 손가락을 간지럽힌다. 나비·수서곤충관에서 톱밥 속에서 자라는 애벌레를 맨손으로 만져볼 수 있다. 운이 좋다면 나비가 번데기 껍질을 뚫고 나오는 순간을 관찰할 수 있다. 육지생물관에서는 양증맞은 미어캣과 다람쥐, 커다란 귀를



쫓곳 세운 사막여우, 육중한 거북 가족을 만나고, 미어캣에게는 먹이를 주며 흥겨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곤충학습관에선 누에 실을 뽑는 체험도 할 수 있다.

체험 통해 배우는 과학관

장영실과학관은 어린이과학관과 장영실과학관으로 이뤄져 있다. 1층 어린이과학관은 '작은 세상' '큰 세상' '이상한 세상' 등의 공간에서 체험을 통해 기초과학을 이해하는 곳이다. 작은 세상에서는 후름라이드 모형을 통해 운동에너지를 체험하고, 열기구를 통해서 는 기체의 온도와 부피의 관계를 배운다. 기차를 운행하며 도체와 부도체의 성질을 체험할 수도 있다. 큰 세상에서는 대형 변기 모양 세트를 통해 물이 흐르는 원리를 이해하고, 금속활자와 영사기의 원리를 배울 수 있다. 어린이과학관을 나오면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알리는 기후변화체험관으로 이어진다.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서 지구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과 재해를 설명하는 공간이다. 자전거 페달을 밟으면 온도계 온도가 1도씩 오르면서 지구상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보여주기도 한다.

2층 장영실과학관은 조선 시대 발명가 장영실의 일대기를 살펴본 후 물, 바람, 금속, 빛, 우주를 주제로 그의 발명품과 과학 원리를 체험하는 공간이다. '물' 주제 공간에서는 장영실이 발명한 자격루와 옥루를, '바람' 공간에서는 조선 시대 풍향을 관측하는 데 사용한 받침돌인 풍기대, '금속' 공간에서는 금속활자인 계미자, '빛' 공간에서는 해시계인 앙부일구, '우주'에서는 천체의 운동을 관측하던 간의(簡儀) 등을 볼 수 있다.

공원 내 건강문화센터와 수영장이 쓰는 에너지로는 소각장의 폐열을 이용한다. 방문객은 건강문화센터의 찜질방과 사우너를 싼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



6, 7 다양한 과학 체험을 할 수 있는 장영실과학관

ADDITIONAL INFORMATION

넘비 대상이 되는 혐오·기피 시설은 사람이 어떻게 변모시키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쓸모가 달라진다. 꺼리던 공간에서 끌리거나 유용한 공간으로의 탈바꿈에 성공한 다른 사례들을 소개한다.

서울



쓰레기 산이 공원으로...월드컵공원

난지도는 1978년부터 1993년까지 15년간 서울시민이 버린 쓰레기를 쌓아둔 곳이었다. 월드컵공원은 쓰레기 9천200만t으로 만들어진 2개의 거대한 산과 평면 넓이 3.5km²(105만 평) 부지에 2002년 한일월드컵을 기념해 조성한 공원이자 평화의공원, 하늘공원, 노을공원, 난지천공원, 난지한강공원 등 5개 테마공원으로 구성됐다. 평화의공원에는 유니세프 광장, 난지연못, 평화의 정원, 피크닉장, 난지도이야기(월드컵공원 전시관) 등이 조성됐다. 하늘공원은 가을에 억새가 장관을 이루고, 노을공원은 서울에서 해넘이가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꼽힌다. 난지천공원에는 난지유아숲체험장, 축구장, 다목적구장 등이 있다. 한강 변의 난지한강공원은 캠프장, 축구장, 농구장, 잔디광장, 자연생태 습지 등을 갖췄다.



'사색의 길' 명소...망우리공원

서울 중랑구에 있는 망우리공원은 일제강점기인 1933년 문을 열어 1973년 매장이 금지될 때까지 사용된 공동묘지 시설이다. 이후 상당수의 묘가 이장(移葬)돼 현재 8천여 기가 남았다. 이곳에는 독립운동가 한용운과 오세창, 민족사학자 문일평, 아동 문학가 방정환, 화가 이중섭, 시인 박인환 등 애국지사 및 예술가가 묻혀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누구나 즐겨 찾는 공원으로 꾸미는 사업이 진행됐다. 산책을 즐기기에 좋은 4.7km 길인 '사색의 길'이 조성돼 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밤에는 조명을 밝힌다. 역사와 인문학을 주제로 하는 투어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국내 최초 도심 화장시설...서울추모공원

2012년 개관한 서울추모공원은 국내 최초 도심 화장시설이다. 건축물과 부지 전체를 한 송이 꽃을 바치는 모습으로 형상화해 시민 문화공간으로서의 뜻을 살렸다. 건물 전체를 지하화했으며 상록수종의 나무를 심어 공원 환경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했다. 유족과 방문객이 고인의 추억을 회상하며 추모글을 작성하는 추모의 벽이 마련돼 있고, 우리나라 장례문화의 변천 과정을 소개하며 올바른 장례문화를 유도하는 갤러리가 있다. 조각작품이 전시된 야외 정원과 카페테리아도 갖췄다. 이곳에서는 미술작품 전시회와 무용 공연 등도 열렸다.

부천



소각장이 문화·예술공간으로...부천아트벙커39

부천 삼정동소각장은 1995년부터 15년간 하루 200t의 쓰레기를 태우던 곳이다. 그러나 도시의 쓰레기를 처리하기에 규모가 적었고 다이옥신 농도가 기준치를 넘어서는 등 문제가 발생해 결국 2010년 가동을 중단했다.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는 삼정동 소각장시설을 문화재생산업 지원대상지로 선정했다. 그 결과로 올 12월 삼정동소각장은 주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이름은 '부천아트벙커39'로 바뀐다. 다양한 전시를 위한 멀티미디어홀,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공간, 현대적 트렌드에 맞춘 컬처 레스토랑, 북 라운지, 나무 숲 등이 들어선다.

인천



쓰레기 매립장의 변신...드림파크 골프장

인천 서구에 있는 드림파크 골프장은 153만3천㎡ 규모의 36홀 골프장이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당시 공식 경기장으로 쓰인 곳이다. 한 해 평균 16만 4천 명이 찾는다. 이곳에는 수도권매립지 제1매립장이 있었다. 골프장 지표면 40m 아래에는 1992~2000년 서울, 인천, 경기도에서 들어온 쓰레기 6천400만 t이 묻혀 있다. 수도권매립지공사는 쓰레기 위에 층을 나누고 흙과 골재를 덮어 2013년 지금의 골프장을 만들었다.

용인



"단순한 하수처리장 아녜요"...용인 레스피아

경기도 용인의 하수처리장 이름에는 모두 '레스피아'(Respia)가 붙는다. 휴식(Rest)·재생(Restoration)과 유토피아(Utopia)의 합성어로, '시민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원'이라는 뜻을 품고 있다. 레스피아에는 이름에서 엿볼 수 있듯 다양한 친환경 시설이 들어서 있다. 기흥구에 있는 구갈레스피아에는 반려견 놀이공원, 게이트볼장, 어린이 풋살장, 농구장, 어린이 놀이터, 생태공원, 기흥레스피아에는 축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족구장, 씨름장, 야외무대와 산책로, 자전거도로, 반려견 공원, 조류 관찰대가 마련돼 있다. 모현·상한·서천·수지·영덕 레스피아에도 이와 비슷한 주민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다.

부산



"악취 나던 그곳 맞아요"...부산 염곡유수지

부산 사상구에 있는 염곡유수지는 비만 내리면 인근 공업단지에서 배출한 오염물질이 흘러들며 심한 악취가 났던 곳이다. 지난해 부산시는 유수지에 모여든 오염된 물을 정화하는 비점오염 저감 공사를 마무리했다. 수질 정화를 위해 3천500㎡ 규모 지하 저류조와 유지용수 펌프장을 마련했다. 공사 이후 이곳에는 1만㎡ 인공 생태습지를 비롯해 테니스장 4면, 족구장 2면, 휴게 쉼터, 산책로가 생겼다. 유수지 주변에는 팽나무 등 나무 4만 그루를 심어 길이 400m에 이르는 수림대를 만들었다.